



보도시점 (지 면) 4.30.(화) 석간
(인터넷) 4.30.(화) 06:00

미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전략기획관" 신설

- 급변하는 국내외 기업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수립과 정책 전반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관』을 『중소기업전략기획관』으로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디지털화, 탄소규제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성장사다리 약화 등 국내외 기업환경에 대응하고 산업전반의 디지털전환과 신산업진출 촉진 등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정책관』을 개편해 중장기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략기획관 신설은 오영주 장관 취임 후 진행 중인 중기부의 "명실상부한 정책부처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등 정책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이 하나로 모이고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창업벤처규제혁신단』 신설(2.3) -> 기후환경 대응 전담부서 지정 및 『글로벌 창업팀』 신설(2.27) -> 『중소기업전략기획관』 신설(4.30)

조직개편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정책관』을 『중소기업전략기획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조직*의 기능을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 정책 및 대응전략을 총괄·조정하도록 신설·개편하였다.

* 전략총괄과, 전략분석개발과, 대외환경대응과, 중소기업제도과 등 4개 과

『전략총괄과』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AI 활용 등 소상공인부터 창업벤처, 중소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주는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각실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강화하여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전략 수립·총괄·조정 부서로 운영한다.

『전략분석개발과』는 기존 『정책평가분석과』 기능에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분석과 정책의제 발굴·개발 및 중장기 정책 개발 기능을 신설하여 『전략총괄과』가 미래 전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외환경대응과』는 기존 『기업환경정책과』 기능에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및 평가,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 분석 및 대응하는 기능을 신설하여 새로운 대내외 기업환경 변화 발생(예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시 중소기업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분석·대응하는 부서이다.

『중소기업제도과』는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운영한다.

한편, 『지역기업정책관』의 하부조직인 『입지환경개선과』를 『기업구조개선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인력정책과』를 『지역기업정책관』에 이관하여 조직체계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오영주 장관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국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전략기획관』을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을 망라하는 종합정책 전략대응 기구로 운영하여, 급변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와 대응에 따른 중장기 정책·전략을 개발·수립하는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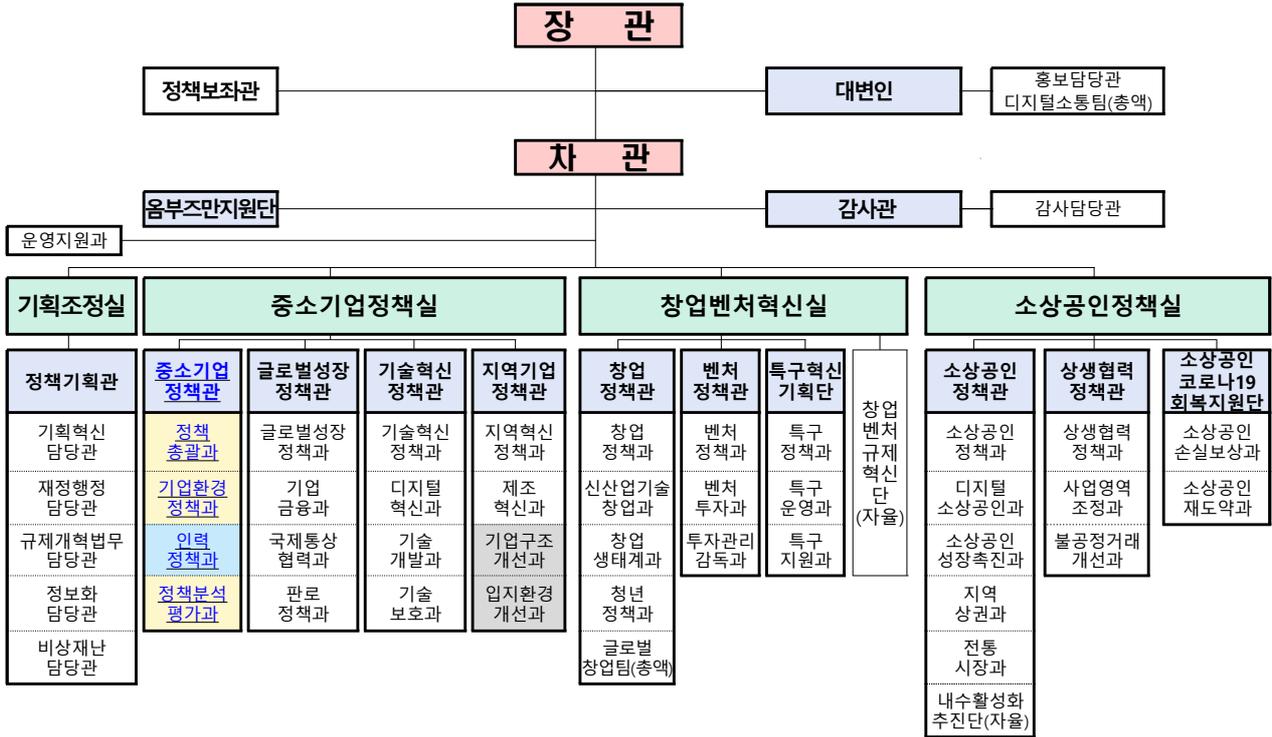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장세훈 (044-204-7340)
		담당자	사무관	이근림 (044-204-7341)
			주무관	조영진 (044-204-733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개편 전



□ 개편 후

